

호날두, 'FIFA 올해의 선수' 초대 수상

메시 제치고 발롱도르 이어 2관왕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레알 마드리드)가 더 베스트 국제축구연맹(FIFA) 올해의 선수 초대 수상자가 됐다.

호날두는 10일(한국시간) 스위스 취리히에서 열린 FIFA 풋볼 어워즈 2016에서 올해의 남자 선수상을 거머쥐었다.

호날두는 총 34.54%의 지지를 얻어 26.42%에 그친 메시를 제쳤다.

발롱도르에 이어 2관왕이다.

양투안 그리즈만(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은 7.53%로 3위에 머물렀다.

수상자는 FIFA 가입국의 대표팀 주장(25%), 감독(25%), 기자단(25%), 팬(25%) 투표로 결정됐다.

FIFA는 지난해까지 프랑스 풋볼과 함께 FIFA-발롱도르라는 이름으로 수상자를 선정했지만 프랑스 풋볼과의 계약이 만료되면서 새로운 이름의 시상식을 탄생시켰다.

호날두의 수상은 어느 정도 예상됐다.

호날두는 지난해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에서 레알 마드리드를 정상에 올려놨다.

이어 유로 2016에서는 포르투갈의 극적인 우승을 이끌며 최고의 한 해를 보냈다.

메시와 그리즈만 역시 뛰어난 성적을 거뒀지만 메이저대회 타이틀을 동시에 두 개나 따낸 호날두를 넘어서기 어려웠다.

상을 받은 호날두는 "생애 최고의 한 해"라며 감격스러워했다.

호날두는 "앞서 몇 차례 언급했듯 (2016년) 아마 내 경력의 가장 훌륭한 해가 될 것이다. 유로2016에서 포르투갈의 첫 우승을 이끌었기에 매우 특별한 한 해"라고 2016년을 돌아봤다.

이어 그는 "레알 마드리드에서 챔피언스



호날두는 10일(한국시간) 스위스 취리히에서 열린 FIFA 풋볼 어워즈 2016에서 올해의 남자 선수상을 거머쥐었다.

리그를 차지한 뒤 클럽월드컵에서도 우승을 하면서 마무리를 잘 했다. 매우 특별한 한 해다. 축구를 시작한 이후 최고의 한 해"라고 자랑했다.

"내가 이미 축구 역사의 일부가 됐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할 이은 호날두는 "축구를 시작한 이래 선수가 되는 것 뿐 아니라 스타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마침내 그것을 해냈다"고 전했다.

초대 수상자라는 점에도 의미를 부여했다. 호날두는 "FIFA가 이 상을 만든 것이 이번이 처음인데 그래서 더욱 특별하다.

엄청난 특권"이라고 미소를 지었다.

올해의 여자 선수상은 미국의 칼리 로이드에게 돌아갔다.

남자 감독상은 클라우디오 라니에리가 차지했다. 라니에리 감독은 레스터 시티를 이끌고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를 정복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독일 여자대표팀에 올림픽 금메달을 선사한 실비아 나이트 감독은 여자 감독상을 가져갔다. 페어 플레이상은 비행기 사고를 당한 사제코엔시(브라질)에 코파 수다베라카나 우승컵을 안보한 아틀레티코

나시오날(콜롬비아)이 수상했다.

베스트 11 골키퍼 부문은 마누엘 노이어(바이에른 뮌헨)가 이름을 올렸고 다니엘 알베스(우벤후스), 헤라르드 파케(FC바르셀로나), 세르히오 라모스, 마르셀루(이상 레알 마드리드)가 수비수로 뽑혔다.

최고의 미드필더로는 루카 모드리치, 토니 크루스(이상 레알 마드리드), 안드레아니에스타(FC바르셀로나)가 선정됐다.

공격수 지리는 호날두와 메시, 루이스 수아레스(FC바르셀로나)가 차지했다.

도 체육회, 동계체전 선수단 격려

전라북도체육회(회장 송하진)가 제8회 동계체전을 위해 구슬땀 흘리는 선수단을 위해 격려에 나섰다.

10일 최영원 사무처장은 아이스하키 종목에 출전하는 중산초등학교 선수들과 빙상 쇼트트랙 및 피겨에 출전하는 선수단을 격려하기 위해 전주화산빙상장을 찾았다.

도 체육회는 이어 10일부터 13일까지 강원과 서울 무주 각지에서 동계훈련을 실시하는 우리도 대표 선수들을 찾아 격려를 실시할 예정이다.

최영원 사무처장은 "우리 도 선수단이 19년 연속 동계체전에서 종합 4위의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매서운 추위에도 아랑곳 않고 훈련에 매진한 선수들의 땀방울 덕분이다"며 "남은 기간 부상방지는 물론 최선을 다해 도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도록 훈련에 총력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8회 전국동계체전은 1월 16일부터 2월 9일까지 종목별로 사전경기가 분산 개최되며, 2월 9일부터 12일까지 본경기가 진행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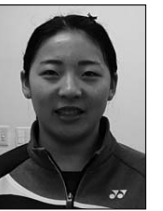
/김민근기자

전북은행 배드민턴팀 공희영 선수 국대 선발

전북은행 배드민턴팀 소속의 공희영(사진)선수가 여자 국가대표팀에 발탁됐다.

공 선수는 지난해 12월 22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 2017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 여자 복식 대표 선수로 선발됐다.

전북은행 김희성 감독은 "공희영 선수는 파워를 바탕으로 한 공격력이 상당히 뛰어난 선수다. 지난 2년간 국가대표로 활동을 하며 단점을 보완해 가고 있으며 수비실력을 조금 더 보강해 국제대회에서 더욱 윗돌한 실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도·감독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근기자

정부, 평창올림픽·패럴림픽 예산 9372억 투입

시설비 지원 전년 대비 55% 감소·대회 개최·준비 지원 예산 전년 대비 3배 증가

문화체육관광부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성공 개최를 위해 올해 범부처 관련 예산 9372억원을 투입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는 마무리단계인 경기장 대회교통망 등 시설비 지원은 전년 대비 55% 감소한 반면, 임박한 대회 개최·준비 지원 예산은 범부처 차원에서 전년 대비 3배 증가한 1668억원을 지원한다.

이는 대회 개최 1년을 앞두고 경기장 등 시설 사회간접자본(SOC) 등의 시설 위주에서 경기력 향상, 대회 운영 등 실질적인 대회 준비 지원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대회 개최·준비 지원 예산은 ▲주요 계기별 대규모 문화행사 개최 등 문화올림픽 본격 지원(387억원) ▲가상현실·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정보통신기술(ICT) 올림픽 실현(114억원) ▲테스트이벤트(사전 점검대회) 홍보, 보안 등 조직위 대회 운영 사업 지원(662억원) ▲특구 관광 개발 도시경관 개선 등 관련 사업(509억원)으로 구성됐다.

평창동계올림픽에서 활약할 대표 선수 지원도 처음으로 연간 300억원을 넘어선다.

문체부는 그간 이루어져왔던 종목별 전담팀운영, 해외전지훈련 확대, 외국인 코치 영입 등에 대한 지원과 올해 초부터 준

공되는 올림픽 경기장에서 직접 훈련하는 시간을 최대한 확보해 지원하기로 했다.

조직위의 재정부담 완화와 수익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지난해 12월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등 대회 운영 관련 외국 법인의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해져 조직위가 대납해야 할 300억원 이상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평창올림픽법 개정으로 국제행사 등에서 주파수 관련 수수료 면제, 임대차료 유상 제입대, 운전자 알선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 문체부는 조직위의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 체육진흥부표권 증량발행 수익금 배분액을 당초 지난해 계획했던 것보다 245억원을 추가로 증액해 지원하기로 확정했다.

정부는 "앞으로 정부 차원의 조직위 예산 지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공공기관 후원 참여와 금융기관 후원 유치를 위해 국 등과 지속적으로 협업체 나갈 계획"이라며 "조직위 차원의 재정 절감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지원금 및 스폰서십 추가 확보 노력 등을 통해 올림픽 재정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지혜를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체부는 11일 범정부 홍보협업체 구축을 위한 제1차 평창올림픽 홍보전략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를 위해 최근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기관별 올림픽 지원 업무를 총괄할 국정급 담당관 지정 등을 요청했다.

/뉴시스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조직위, 사무식 개소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의 조직위원회가 10일 대회 개최 165일을 앞둔 가운데 무주 태권도원에 사무소를 개소했다.

이날 개소식 및 현판식에는 조직위의 임원들과 황정수 무주군수, 유승열 무주군의회 의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조직위는 이날 개소식을 시작으로 남은 6개월 동안 최선을 다해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조직위 이종석 사무총장은 "무주 사무소 이전으로 업무추진 효율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며, 현장중심의 대회 운영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김민근기자

위대한 체·인·지의 시작

태권도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태권도 교육, 체험, 수련, 문화교류의 장

<http://www.tkdwon.kr>

태권도원 - 우리 세대에 우리가 만든 세계문화유산

올림픽 단일종목으로는 최초로 국제경기, 체험, 수련, 교육, 연구, 교류 등 태권도에 관련된 모든 것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공간입니다.

또한 전 세계인이 태권도를 통해 한국을 느끼고 한국의 일에 활용될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살아있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Taekwondowon
THE GREAT CHANGE

태권도원

전북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 / 063) 320-0114